

조선 중기 문인 申欽의 蘇軾觀

류 소 진*

<目次>

- | | |
|--------------------|-----------------|
| I. 서론 | IV. 蘇軾과 자신의 동일시 |
| II. 蘇軾의 爲人에 대한 흠모 | V. 결론 |
| III. 蘇軾의 詩文에 대한 추앙 | |

I. 서론

北宋 문인 蘇軾(字 子瞻, 號 東坡, 1036~1101)은 문학가로서뿐만 아니라 예술가나 학자로서도 발군의 재능을 발휘한 불세출의 인물로 우리나라에도 일찍부터 잘 알려져 있었다.¹⁾ 또한 소식의 시문집도 고려 시대에 이미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많은 고려 문인들이 그의 작품을 즐겨 읽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학습대상이 되기도 하였다.²⁾ 이후 우리나라 문인들의 소식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 1) 소식은 아직 생존하여 한창 활동하고 있던 시기에 이미 그 명성이 고려에 전해져 金觀이 소식·蘇軾 형제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아들인 金富軾(1075~1151)·金富軾 형제의 이름을 지었을 정도로 소식 형제에 대한 추앙심이 대단했다. 이 사실은 宋나라 사신으로서 고려에 다녀간 적이 있는 徐兢의 《宣和奉使高麗圖經》 권8 <人物>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 2) 王水照의 <蘇軾文集初傳高麗考>의 고증에 따르면, 최초로 고려에 유입된 소식 문집은 《錢塘集》으로 熙寧 10년(1077, 고려 文宗 31년, 소식 나이 42세)에 고려 사신이었던 崔思訓이 인솔해 간 사신단이 귀국하면서 고려로 가지고 온 것이다. 《蘇軾研究》(王水照, 河南教育出版社, 1999) 316-317쪽 및 《소동파평전—중국의 문호 소식의 삶과 문학》(왕수이자오 지음 / 조규백 옮김, 돌

에 대한 추앙심은 점점 깊어져 고려 중엽에는 마침내 너도나도 오로지 소식의 작풍만 배우려고 하기에 이르렀으니 고려 중엽 이후 우리 문단에 끼친 소식의 영향은 실로 놀랄 만한 정도였다. 더욱이 소식에 대한 학습과 추앙은 문학 방면에서만 아니라 예술·문화생활 등 각 방면에서 이루어져 고려 문단 전체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소식을 추앙하는 뜨거운 열기, 즉 소위 「東坡熱」³⁾이라는 것이 생겨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겨난 「동파열」은 고려 중기 이후로 문단 내에서 오래도록 사그라지지 않았음은 물론, 점차 생활과 풍속에서도 체현되어 일종의 보편적인 문화 현상을 이루게 되었으며, 고려 중기에서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약 900년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된 「동파열」이 900년 동안 늘 똑같은 열기를 유지할 수는 없었다. 각 시기별로 사회적 기풍이나 사상적 배경 등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에 따라 소식이 우리나라 문단에 끼친 영향의 정도도 달랐으며, 그들이 소식을 추앙하고 학습하는 면모에도 차이가 있었다.

고려 및 조선 문단에 끼친 소식의 영향은 지대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도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⁴⁾ 시대별로 살펴보자면 고려 중·후기와 조선 초기의 경우에는 「동파열」이 뜨거웠던 만큼⁵⁾ 이 시기 문

배개, 2013) 6쪽 참조.

- 3) 金台俊(1905~1945)이 《朝鮮漢文學史》(東嶽語文學會, 1972, 83쪽)에서 이러한 현상을 「동파열」이라고 칭한 이후에, 한국 학술계의 일부 학자들도 이 표현을 빌려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이러한 현상을 묘사하였다. 예를 들어 金暎春은 <李奎報研究>(啓明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1, 8쪽)에서 고려 문인들이 소식을 추앙하는 현상을 언급할 때 「東坡崇拜熱」·「東坡熱」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姜慶姬는 <朝鮮後期 崇蘇熱과 東坡笠履圖>(《中國語文學論集》 제65호, 2010, 416쪽)에서 「崇蘇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 4) 고려 및 조선 문단에 끼친 소식의 영향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방대하여 본고에서는 일일이 소개하지 않겠다. 이에 관해서는 조규백의 <고려·조선조에서의 소동파 수용에 관한 연구개황—1964~2015년 기간을 중심으로>(《中國學報》 제73집, 2015)에 최근 연구현황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참고할 만하다.
- 5) 고려 문인 李奎報(1168~1241)가 <答全履之論文書>에서 당시의 젊은 학자들이

단의 전반적인 소식 수용 양상이라든지 개별 문인들에게 끼친 소식 영향 연구 등도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淸나라 문예사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문인들 사이에서도 문학·예술·문화 등 다방면에서 소식을 재조명하는 열풍이 불게 되었는데, 이 시기 조선 문단에 끼친 소식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이전 시기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주로 청대 문예사조와 관련지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이에 반해 조선 중기 문단에 끼친 소식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진한 편이다. 이 시기에는 소식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性理學이 성행함에 따라 소식에 대한 純儒들의 배격이 아주 심해졌고, 시단에서는 杜甫를 위시한 唐詩를 숭상하고 배우고자 하는 풍조가 생겨나면서 「동파열」은 더욱 식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조선중기 문단에 끼친 소식의 영향은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고려 및 조선 문단에 끼친 소식의 영향에 대해 거시적으로 살펴 보던 중에 조선 중기 무렵에 이르러 소식 추앙의 열기가 많이 식은 것은

일단 과거에 급제하여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만 하면 너도나도 소식의 시를 배우는 기풍을 두고, “세상의 학자들이 처음에는 과거시험에 필요한 문체를 익히느라 풍월을 일삼을 겨를이 없다가 과거에 급제하고 나서 시 짓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소식 시 읽기를 무척이나 좋아하기 때문에 매년 과거의 방이나 불은 뒤에 사람마다 금년에 또 서른 명의 소동파가 나왔다고 여긴다(世之學者, 初習場屋科舉之文, 不暇事風月, 及得科第, 然後方學爲詩, 則尤嗜讀東坡詩, 故每歲榜出之後, 人人以爲今年又三十東坡出矣)”라고 한 말과 조선시대의 대학자 金宗直(1431~1492)이 《靑丘風雅》 서문에서 “신라 말에서 고려(918~1392) 초까지는 오로지 만당 시만 익혔고 고려 중엽에는 소식 시만 배웠다(羅季及麗初, 專習晚唐, 麗之中葉, 專學東坡)”라고 한 것을 보면 고려 중엽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도 너도나도 소식의 시를 배우려는 기풍이 만연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金萬重(1637~1692)이 《西浦漫筆》에서 “국초에는 고려의 남은 기풍을 이어 오로지 소동파를 배웠다(國初承勝國之緒, 純學東坡)”라고 말한 바와 같이, 조선 왕조가 건립된 이후에도 한동안 뚜렷한 변화 없이 조선 전기의 문인들도 여전히 소식의 시문을 학습하고 그를 추앙하는 풍조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蘇軾著/柳種陸譯註, 《정본완역 蘇軾詩集1》(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머리말> 참조.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식을 좋아하고 배우려던 문인들이 상당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특히 李滉(1501~1570)·金麟厚(1510~1560)·朴世采(1631~1695) 등 여러 성리학자들에게서도 소식의 시문을 애호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 이는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들은 때로는 소식의 詩句나 관련 일화를 典故로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식의 시에 追和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소식의 赤壁船遊를 모방하기도 했다.⁶⁾ 이에 필자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조선 중기 문단에 끼친 소식의 영향에 대해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필자는 조선 중기 문단에 끼친 소식의 영향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던 중 申欽(1566~1628)과 관련된 자료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소식을 향한 신희의 추앙심이 남다른 것을 발견하였다. 더욱이 신희의 인생역정이 소식과 매우 흡사하여 신희 스스로도 자신을 소식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일 정도였는데, 고려 및 조선 문인들 가운데 소식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문인들이 소식을 더욱 흠모하고 그의 시문을 더욱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경향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희의 문학 역시 소식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되어 이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해 보았으나, 뜻밖에도 신희와 소식의 영향관계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⁷⁾ 이에 소식과 신희의 영향관계를 심도 있게 고

6) 拙稿, 《蘇軾對高麗及朝鮮漢文詩壇的影響研究》, 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108-121쪽 참조.

7) 신희 한시와 중국문학의 영향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申欽의 漢詩에 나타난 陶淵明의 受容樣相>(김주순, 《중국인문과학》 28권, 2004), <象村 申欽의 和陶詩 연구>(김주백, 《한문학논집》 10권, 1992), <象村 申欽의 <和陶詩> 중 <飲酒> 20首 연구: 陶淵明의 <飲酒>, 蘇軾의 <和陶飲酒詩>와의 비교문학 적 관점에서>(정숙인, 《우리문학연구》 35권, 2012) 등과 같이 주로 도연명 특히 화도시와 관련지는 논문이 비교적 많은 편이며, 屈原의 <離騷>라는 특정 작품의 수용양상에 초점을 맞춘 <象村 申欽의 屈騷 수용양상>(정일남, 《한문학보》 24권, 2011)과 같은 논문도 있다. 이밖에 《상촌 신희의 문학세계》(민족문화추진회, 1997), 《한국 한시의 이해》(심경호, 태학사, 2000), <조선조 문인의 소동파시 수용과 평가>(조규백, 《대동문화연구》 91권, 2015), <朝鮮時代文人對蘇東坡詩文的“受容”及其蘇東坡觀>(조규백, 《퇴계학과 한국문화》

찰해 보기 위하여 먼저 소식의 爲人과 그의 詩文에 대한 신흘의 관점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蘇軾의 爲人에 대한 흠모

신흘은 宣祖·光海君·仁祖 시대에 걸쳐 활동했던 정치인이자 유학자로 조선 중기 漢文四大家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유명한 性理學者였다. 신흘이 활동한 조선 중기는 정치·사회면에서 壬辰倭亂(1592)·丁酉再亂(1597)·癸丑獄事(1613)·仁祖反正(1623)·李适의 亂(1624)·丁卯胡亂(1627) 등과 黨爭으로 인한 內憂外患이 겹친 역경과 고난의 시기였다. 그는 이러한 시기에 탁월한 외교가로서 明과의 親交를 두텁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훌륭한 정치인으로서 활약하였으나, 癸丑獄事가 일어나자 선조가 생전에 永昌大君의 뒷일을 부탁한 遺教七臣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관직을 빼앗기고 10여 년(1613~1623) 동안 放逐과 流配生活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다가 1623년 西人이 광해군 및 집권세력인 대북파를 몰아내고 인조를 옹립하는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신흘은 정계에 복귀하여 이조판서겸대제학을 제수받았고, 그 후 우의정을 지내다가 정묘호란(1627)이 일어났을 때는 좌상겸세자부가 되었으며,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인조와 함께 公州로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조정의 최고 관직인 영의정에 올랐다. 문장과 정치 등에 박학다식했던 신흘은 1628년 6월 29일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일생 동안 63권에 달하는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2,000여 수에 달하는 한시가 있다.⁸⁾

이처럼 신흘은 남다른 재능을 지니고 있었으면서도 정치적 역경이 적지

제38호, 2006), <韓國「和陶詩」研究 序說>(김보경, 《中國文學》 66권, 2011) 등에서 부분적으로 소식에 대한 신흘의 평가 및 영향관계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다.

8) 《상촌 신흘의 문학세계》(민족문화추진회, 1997) 81쪽 및 《한국 한시의 이해》(심경호, 태학사, 2000) 371-372쪽 참조.

않았으니 그의 인생역정은 소식의 그것과 유사한 면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그를 좋아하는 것은 아무래도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신흠은 52세 때 쓴 <自贊并序>에서 자신이 소식의 글뿐 아니라 그의 사람 됨됨이까지도 좋아했노라고 내심을 드러냈다.

일찍이 黃魯直(黃庭堅)이 東坡(소식)를 찬한 글과 자찬한 글을 보니, 기이하고 예스럽고 초탈하고 탁월하여 내심 그 글을 좋아한 데다 평소에 두 분의 사람 됨됨이를 좋아하여 짝막한 찬을 지어 나 자신을 두 분의 뒤에 끼워 두는 바이다. 지금 사람들 중에는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후세에 어찌 揚子雲(揚雄)이 없겠는가? 그러한 사람이 나온다면 역시 漆園(莊子)이 말한 아침저녁으로 만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천 년에 한 사람 나타날 것이고 뜻이 맞으면 만물이 다 같을 것이다. 온화하고 공손하면서도 근엄한 사람은 摩圍道人(황정견)⁹⁾이고 특트여 활달한 이는 東坡居士(소식)인데, 수레를 막 몰아 굴대가 부러지더라도 고민하지 않고 가다가 길이 막히더라도 걱정하지 않으며, 한계가 있는 생명을 가지고 한계가 없는 지식을 깨닫지 않는다. 이 현웅은 두 분과 짝을 이룬다.(嘗見黃魯直贊東坡及自贊文, 奇古超卓, 竊喜之, 且素好兩公爲人, 作小贊以自列於二子之後, 當世者固莫之許, 後豈無子雲? 亦漆園之朝暮遇者夫. 和寡則千載一士, 志契則萬物一致. 穆然而莊者, 摩圍道人; 曠然而達者,

9) 無名氏의 《氏族大全》(文淵閣四庫全書本) 卷8 <江西詩祖>에 “황정견은 자가 노직이다. 소동파가 그를 천거하여 말하기를 ‘빼어난 문장은 요즘 세상에서 가장 절묘하고, 부모님께 효성스럽고 형제간에 우애 있는 행실은 옛 사람과 짝할 만하다’라고 했다. 처음 서주 석우동의 산곡사에서 이공택(李常)과 만나 늘 유람하며 즐겼기 때문에 스스로 호를 산곡도인이라고 했고, 부주별가로 폄적되었기 때문에 호를 부옹이라고 했으며, 검주에 폄적되었을 때 개원사에 우거했는데 그 절에 마위천이 있었기 때문에 마위노인이라고 했다. 여거인(呂本中) 등이 강서시파의 개조로 추존했다(黃庭堅, 字魯直. 東坡薦之云: ‘瑰奇之文, 絕妙當世; 孝友之行, 追配古人’. 初與李公擇相見于舒州石牛洞山谷寺, 常遊而樂之, 故自號山谷道人; 謫涪州別駕, 因號涪翁; 謫黔州, 寓開元寺, 寺有摩圍泉, 因號摩圍老人. 呂居仁等推爲江西詩祖)”라고 한 것을 보면 황정견은 호를 摩圍老人이라고 했음을 알 수 있는바, 문맥으로 볼 때 이 문장의 ‘摩圍道人’은 황정견을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東坡居士. 駕而折軸而无悶, 去而道塞而無憂; 不以有涯之生, 罣乎無涯之知者. 伊玄翁與二子儔.)¹⁰⁾

여기서 신흘은 자신이 소식의 사람 됨됨이를 좋아했다고 명백하게 밝혔다. 그리고 그 주된 이유는 “특 트여 활달하고”, “수레를 막 몰아 굴대가 부러지더라도 고민하지 않고 가다가 길이 막히더라도 걱정하지 않으며”, “한계가 있는 생명을 가지고 한계가 없는 지식을 패념하지 않는” 그의 성격 때문이었다.

<玄翁自贊并序>라는 다른 자찬문에서 그는 또

지금 내 나이는 52세로 실제로 노쇠하기는 하였으나 그렇게 심하게 늙은 것은 아닌데, 법망에 걸린 지 이미 5년째로 벼슬아치 명부에서 삭제되고 심리에 부처지고 방귀전리되고 폄적되는 등 한 가지 죄목에 네 가지 벌이 합쳐졌으며, 법망으로 얹어 넣는 것이 양에 차지 않으면 또 참소와 무함을 가하였다. 아! 그러하니 어찌 늙지 않을 수 있겠는가? 거울을 쥐고 스스로를 비춰 보면 다른 사람 같다. 이로 인해 自贊하면서 실은 스스로를 조소한 것이다.(余年五十二, 固衰矣, 而非甚老者也, 而罹文罔已五載, 削仕版矣, 下理矣, 放歸矣, 竄謫矣, 一辜而四律竝矣, 文致不足則又具錦焉. 噫! 如之何不老. 攬鏡自見如他人也, 因以自贊, 實自嘲也.)¹¹⁾

라고 밝혔는데, 미루어보건대 이렇듯 처량한 신세가 된 신흘은, 거의 평생을 유배지를 전전하면서도 오히려 광달하고 초연한 마음으로 유쾌하게 살았던 소식의 인품에 감화되었고, 이러한 소식을 존경하고 그로부터 삶의 자세와 인생관을 배우고 싶었을 것이다.

신흘은 또 아래와 같이 소식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東坡는 호걸스러운 사람이다. 介甫(王安石)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한

10) 申欽, <自贊并序·別稿>, 《象村稿》(韓國文集叢刊本) 권30.

11) 申欽, <玄翁自贊并序>, 《象村稿》(韓國文集叢刊本) 권30.

패거리가 되려 하지 않은 것은 평소의 행동을 고수함이요, 涑水(司馬光)가 들어가 정승이 되었을 때에도 부화뇌동하지 않았으니, 이 사람이 和而不同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단지 程氏 일파에게 죄를 지은 까닭에 晦庵(朱熹)이 힘을 남기지 않고 공격했던 것인데, 세상의 儒者들이 마침내 남에게 뒤질세라 배척들을 하고 나섰으니, 이는 지나쳤다고 할 것이다. 나는 “주공과 관숙 채숙 형제 세 명이, 초가삼간에 살아 보지 않은 것이 한스럽네”라고 한 동파의 시구를 읊을 때마다 멀리 앞서가는 그의 모습을 뒤에 처져 쳐다보는 심정이 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東坡豪傑之士也. 介甫當朝而不肯附者, 固素履也; 至於涑水入相, 亦不雷同, 此非和而不同者耶? 只以得罪程門, 晦庵攻之不遺餘力, 而世之儒者遂擯之如不及, 可謂過矣. 每詠其“周公與管蔡, 恨不茅三間”之句, 未嘗不睜乎其後也.)¹²⁾

여기에서는 당시 신법파와 구법파의 대립에 대해 말하고 있다. 宋 神宗 때 재상을 맡고 있던 王安石이 富國強兵策으로 新法을 추진하여 신법파가 실세가 되었지만 소식은 여기에 가담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견지하였다. 신법은 왕안석이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신종의 재위 기간에는 꾸준히 추진되다가 1085년 신종이 죽고 哲宗(재위 1085~1100)이 즉위하자 신종의 어머니인 宣仁太后가 司馬光(1019~1086) 등의 구법당 세력을 등용해 신법을 차례로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소식은 부화뇌동하지 않았으니 바로 “和而不同”¹³⁾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며 신흠은 그의 인품을 높이 산 것이다. 이어서 洛蜀黨爭¹⁴⁾에 관해 언급하며 단지 정씨 일파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학자들이 앞다투어 그를 배척하는 것은 지나치다

12) 申欽, <求正錄·上>, 《象村稿》(韓國文集叢刊本) 권57.

13) 《論語·子路》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상대와 어우러지기는 하지만 소신 없이 남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으며, 소인은 소신 없이 남을 그대로 따르기는 하지만 상대와 어우러지지는 못한다’라고 하셨다(子曰: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라는 말이 있는데, 신흠은 이 표현을 차용한 것이다.

14) 程頤는 洛陽 출신이고, 소식은 四川 출신으로 각각 洛黨과 蜀黨의 영수였는데, 서로 대립하고 비판하였다. 洛蜀黨爭은 元祐(1086~1093) 연간에 정이와 소식 두 사람의 성격과 견해가 서로 달랐던 데에서 비롯하여 낙당과 촉당이라는 두 학파의 학문적 다툼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다툼으로까지 발전했다.

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식의 “주공과 관숙 채숙 형제 세 명이, 초가삼간에 살아 보지 않은 것이 한스럽네”라는 시구를 떠올리며 서로 반목하지 않고 조화롭게 살고 싶어한 소식의 爲人을 상기했다. 이는 성리학자이면서도 그들의 사상과 주장에 맹목적으로 동조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불편부당한 태도를 취하고자 하는 신흘 자신의 관점과 부합했기 때문일 것이다.

신흘은 때때로 “소 선생은 사람 가운데 신선인데, 어인 일로 백거이를 사모하였나(蘇子人中仙, 何事慕樂天)”¹⁵⁾, “소동과란 신선은 혜주에 있을 적에, 날마다 여지 먹는 것을 마냥 자랑했거니와, 이 늙은이 취향이 나와 같은데, 동시대에 태어나지 못한 것이 한이로다(蘇仙在惠州, 漫誇日啖荔. 伊翁吾臭味, 恨未生同世)”¹⁶⁾, “동과 신선이 활화로 끓이길 기다릴 필요 없나니, 천연의 특별한 산물이 무척이나 맑다네(不待坡仙活火烹, 天然奇種十分清)”¹⁷⁾와 같이 소식을 신선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蘇仙」이라는 표현은 黃庭堅·朱熹 등 중국 문인들이 소식을 지칭할 때 종종 썼던 표현이고 고려 및 조선 문인들도 이러한 표현을 많이 차용하여 소식을 신선시하였다.¹⁸⁾ 신흘 역시 소식을 「人中仙」이라 부르기도 했고 「蘇仙」·「坡仙」 등의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사람을 신선이라 부른 것은 소식의 자유분방하며 호방하고 초탈한 성격을 반영한 것이겠지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그를 향한 흠모와 추앙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식은 스스로 “내가 도연명을 좋아하는 것이 어찌 유독 그의 시를 좋

15) 申欽, <詠事二首> 其一, 《象村稿》(韓國文集叢刊本) 권5

16) 申欽, <次東坡遷居韻>, 《象村稿》(韓國文集叢刊本) 권6

17) 申欽, <次東臯牛家庄>, 《象村稿》(韓國文集叢刊本) 권12

18) 예를 들면, “佳境向來唯赤壁, 茲遊儻亦繼蘇仙。”(李荇, <呼韻三首> 其三), “登臨壬戌猶堪賦, 欲喚蘇仙儻有魂。”(朴閔, <遊鳳凰巖> 其二), “蘇仙一去幾今古, 依舊杯中一片月. 唱徹瓊詞幔亭中, 仙風豪氣如憑空。”(李滉, <十一夜, 陪龔巖先生, 月下飲酒杏花下, 用東坡韻>), “枉教李白停盃問, 共負蘇仙即望秋。”(申緯, <余一生詩盟, 在由蘇入杜. 尹竹史既望無月之什, 與余詩韻不謀而同, 可喜其詩盟之又與我敦也, 爲用原韻答之>) 등이 있다.

아할 뿐이겠는가? 그의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도 진실로 감동한 바가 있다 (吾於淵明, 豈獨好其詩也哉? 如其爲人, 實有感焉)¹⁹⁾라고 하여 자신이 도연명 시를 좋아한 것이 도연명의 위인에 감동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했거니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흘 역시 소식의 위인을 흠모하고 추앙했으니 이것이 그로 하여금 소식의 시문을 좋아하게 하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한다.

III. 蘇軾의 詩文에 대한 추앙

신흘은 《晴窓軟談》이라는 자신의 詩話集에서 소식의 시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품평한 바 있다.

東坡는 시나 문장이 모두 신의 경지에 들었다. 세상에서 唐詩를 배우는 사람들은 항상 동파를 비방하는데, 만약 동파의 작품 가운데 아름답고 고운 작품을 가려내어 몇 권의 책으로 만들어 세상에 내놓는다면 어찌 唐代의 시대 흐름을 따른 작품만 못하겠는가? 다만 소동파는 작품세계가 너무 커서, 우물 안 개구리의 소견으로는 望洋之歎이 있을 뿐이다. 가령 <四時詞>를 唐詩集 속에 넣는다면 溫庭筠이나 李商隱이 꼭 선구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매년 그가 지은 “배꽃이 해맑으면 버들잎이 시퍼렇고, 버들개지 날릴 때면 성에 꽃이 가득했지요. 동쪽 난간의 두 그루가 눈에 덮였으려면, 인생에 몇 번이나 청명을 볼 수 있을까요?”라는 절구를 읊노라면,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생각을 바람에 날리는 꽃과 안개에 덮인 버드나무의 사이에 깃들여 놓고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경지라고 할 수 있다. 그가 巫山을 지나며 杜子美의 韻을 써서 지은 시를 보면, “파촉 지방 풍속은 손님을 꼭 붙드는데, 오지방 사람은 돌아갈 생각만 하네. 함께 이야기하기 어려운 줄 아는 것일 뿐, 일부러 피하는 건 결코 아니네. 동현을 지나갈 땐 동진 냄새 풍기고, 강릉에선 겹옷을 바꿔 입으리. 무협의 비에게 부탁하노니, 모쪼록 아침 햇빛 가리지 마라”라고 하였는데, 두보의 시

19) 蘇軾, <子瞻和陶淵明詩集引>, 《欒城集》後集 권21, 上海古籍出版社, 1987.

풍과 아주 가깝기 때문에 참으로 易牙의 입이 아니고는 淄水인지 澠水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동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가 고사를 인용한 것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못 먹을 음식을 잔뜩 늘어놓는 것에 비유하는데, 이러한 주장도 타당하기는 하다. 그러나 동파가 고사를 인용한 것은 재주가 너무 많아 자신도 모르게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것을 싫어하면 그만이지 어찌 이것을 가지고 그를 탓할 수 있겠는가? 그의 시 가운데 가령 “.....”, “희미한 달과 성긴 별이 건장궁을 감쌀 제, 선계의 바람이 향로의 향을 내려 보내네. 근신들이 통명전에 고니처럼 선 모습, 한 떨기의 붉은 구름이 옥황상제를 만든 모습이네”, “뉘싯배 돌아갈 때 창포 잎에 비 뿌리고, 물레 소리 나는 곳에 떨구슬 꽃이 날렸네. 장강에서 옛날에 노닐던 곳이, 모두가 지금 나의 꿈속에 있네”, “.....”, “봄밤의 값어치는 일각이 천금, 꽃은 향기 내뿜고 달은 그늘졌구나. 누대에는 풍악 소리 은은하게 울리고, 그네 드리운 뜨락에는 밤이 고요하구나”, “연못가에서 발을 걷고 늦게 핀 연꽃 바라보며, 자리 밑에 석양이 들어온 줄도 모르누나. 강비는 사뿐히 걷는 것도 스스로 아끼면서, 늘 높은 연잎 부채 그늘 밑에 있구나”라고 한 것 등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許渾이나 劉滄 같은 사람들이 동파의 屬官이 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고려조와 조선조에서는 모두 소동파를 숭상하였기에, 고려조의 大比科에 “서른세 명의 소동파”라는 말이 있을 정도가 되었다. 최근에 들어서 점점 그를 좋아하지 않게 되어 시를 짓는 사람들이 모두 당나라 사람들을 배운다. 그런데 그들의 조예를 가늠해 보면 邯鄲學步에 불과할 따름이다. 어찌 “시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훌륭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가? (東坡詩文俱神境也。世之學唐者常嘗之，若簡摘其艷麗，略爲數卷書行于世，何渠不若唐家時世粧耶？只以家數甚大，培井之見，有望洋之歎爾。如四時詞，置之唐集則濫。李未必爲前茅。每詠其絕句“梨花淡白柳深青，柳絮飛時花滿城。惆悵東欄一株雪，人生看得幾清明”²⁰⁾，其俛仰遷逝之意，寓於風花煙柳之間，可謂十分地位。其過巫山用杜子美韻曰：“巴俗深留客，吳儂但憶歸。直知難共語，不是故相違。東縣聞銅臭，江陵換袂衣。丁甯巫峽雨，愼莫暗朝暉”²¹⁾，太逼杜家，苟非易牙之口，難辨其爲淄爲澠。病東坡者，以其用古事太多，比之飭飯，此論亦宜矣。東坡之用古事，只患才之太多，出語天成而不自覺爾，奚可以此而尤之耶？如

20) 蘇軾, <和孔密州五絕> 其三 <東欄梨花>, 《蘇軾詩集》(王文誥輯註本) 권15.

21) 蘇軾, <戲題巫山縣用杜子美韻>, 《蘇軾詩集》(王文誥輯註本) 권50.

“……”，“淡月疏星繞建章，仙風吹下御爐香。侍臣鵠立通明殿，一朵紅雲捧玉皇”²²⁾，“釣艇歸時菖葉雨，綠車鳴處棟花風。長江昔日經游地，盡在如今夢寐中”²³⁾，“……”，“春宵一刻值千金，花清清香月有陰。歌管樓臺聲細細，鞦韆院落夜沈沈”²⁴⁾，“塘上鉤簾對晚香，不知斜日已侵床。江妃自惜凌波鞵，長在高荷扇影涼”²⁵⁾，此等何可盡記？可令許渾·劉滄輩不作衙官也耶？麗朝及我朝，皆尚東坡，故麗朝大比，至有“三十三東坡”之語。近年以來，稍稍不喜，為詩者皆學唐人。而揆其造詣則不過壽陵步爾。豈不聞“詩到無人愛處工”²⁶⁾之語耶？²⁷⁾

조선 중기 문단에서는 성리학을 중시하고 唐詩의 학습을 주장하는 문단의 경향으로 인해 이전 시기와 달리 소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유달리 컸다. 대표적인 예로, 許筠(1569~1618)은 “본조의 시학은 소식과 황정견을 위주로 하여 비록 周敦頤를 숭상하는 大儒라 하더라도 또한 그 데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나머지 세상에 이름이 난 사람은 대개 그 찌꺼기를 빨아들여 케케묵은 말을 남기는지라, 읽으면 염증이 날 정도이다. 盛唐의 소리는 다 없어져 들을 수가 없다(本朝詩學, 以蘇·黃爲主, 雖景濂大儒, 亦墮其窠臼. 其餘鳴于世者, 率啜其糟粕, 以遺腐牌坊語, 讀之可厭, 盛唐之音, 泯泯無聞)”²⁸⁾라고 하며 盛唐의 시를 높이 평가하는 반면 소식과 황정견을 배우는 사람들을 비판하였고, 李睟光(1563~1629)은 “당대 사람들은 시를 지음에 오로지 興致만 중시했기 때문에 用事が 많지 않은데, 송대 사람들은 시를 지음에 오로지 用事を 숭상하고 흥치는 적었다. 소식과 황정견에 이르러서는 또 불교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새롭고 기이하게

- 22) 蘇軾, <上元侍飲樓上三首呈同列> 其一, 《蘇軾詩集》(王文誥輯註本) 권36.
 23) 蘇軾, <僕年三十九, 在潤州道上過除夜, 作此詩. 又二十年, 在惠州, 追錄之以付過二首> 其二, 《蘇軾詩集》(王文誥輯註本) 권50.
 24) 蘇軾, <春夜>, 《蘇軾詩集》(王文誥輯註本) 권48.
 25) 蘇軾, <同景文詠蓮塘>, 《蘇軾詩集》(王文誥輯註本) 권50.
 26) 陸游, <明日復理夢中意作>, 《劔南詩藁》(文淵閣四庫全書本) 권58.
 27) 申欽, <晴窓軟談·中>, 《象村稿》(韓國文集叢刊本) 권51.
 28) 許筠, <鶴山樵談>, 《惺所覆瓿藁》(韓國文集叢刊本) 권26 부록1.

하고자 힘썼으나 詩格은 어떠한지 모르겠다. 근세에는 이러한 폐단이 더욱 심해져 한 편 안에 用事가 반을 넘으니 옛 사람들의 시구와 시어를 표절 한 것과 별 차이가 없다(唐人作詩, 專主意興, 故用事不多; 宋人作詩, 專尚用事, 而意興則少. 至於蘇·黃, 又多用佛語, 務爲新奇, 未知於詩格如何. 近世此弊益甚, 一篇之中, 用事過半, 與剽竊古人句語者, 相去無幾矣)²⁹⁾라고 하며 흥치를 중시한 당시와 전고 사용에 힘쓴 송시 특히 불교 용어까지 많이 사용한 소식과 황정견에 대해서는 더욱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소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지만, 신희의 견해는 이와 많이 달랐다. 앞에 소개한 《청창연담》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신희는 소식의 시와 문장이 모두 신의 경지에 들었다고 극찬하였으며, 특히 그의 시에 대해 당시 사람들이 병폐라 여기는 부분을 들어 이에 반박하며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는 오히려 당시 문단의 경향에 대해 비판하면서 소식의 작품세계가 워낙 커서 그렇지 훌륭한 작품만을 선별해 낸다면 唐詩보다 못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소식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우물 안 개구리에 비유하였다. 이어서 자신이 생각하는 소식의 명구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며 이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사람들이 소식 시에 고사의 인용이 너무 많음에 대해 비판하자 그것 역시 소식의 재주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지 비방할 성질은 아니라며 그를 옹호하고 있다. 계속해서 소식의 훌륭한 시를 더 예시하였는데 너무 많아 일일이 기록할 수 없다고 하며 이렇게 볼 때 당시 사람들이 높이 평가했던 唐代 시인 許渾이나 劉滄 등은 동과의 屬官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평하였다. 또한 唐詩를 좇아 배우는 사람들의 조예를 한단학보에 불과할 따름이라 하며 “시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훌륭하다”³⁰⁾고 한 육유의 시구를 가져와 당시 문단의 세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29) 李睟光, <文章部二·詩>, 《芝峯類說》(韓國文集叢刊本) 권9.

30) 속인들이 좋아하는 경지를 뛰어넘은, 평담하고 자연스러운 시가 훌륭한 시라는 뜻이다.

이 밖에도 신흠은 자신의 시화집 《청창연담》이나 수필집 《求正錄》 도처에서 소식의 시에 공감하는 짝막한 평을 남겼다.

東坡의 시에 “낙양의 재상은 충효의 집안인데, 가련하게 그도 역시 황모란을 바쳤다네”³¹⁾라고 하였는데, 나는 이것을 볼 때마다 世道에 고급의 차이가 없음에 가슴이 아팠다.(東坡詩曰: “洛陽相公忠孝家, 可憐亦進姚黃花”, 余每覽此, 傷世道之無今古也.)³²⁾

이것은 소식의 <여지의 탄식(荔支歎)>에 나오는 시구인데, 이 시는 소식이 政敵들에게 쫓겨 멀리 중국 대륙의 최남단인 惠州까지 귀양 가 있던 紹聖 2년(1095) 여름에 지은 것으로, 한나라와 당나라 때 관리들이 임금의 은총을 사기 위해 여지를 바치는 바람에 백성들의 질고가 극도로 심했던 역사적 사실을 지적하고 뒤이어 임금의 은총을 사기 위해 차잇과 모란을 진상하는 당시의 풍조를 질책한 것이다. 시에 나오는 洛陽相君은 낙양의 재상이라는 뜻으로 송나라 초기 사람 錢惟演(?~1033)을 가리킨다. 그의 집안은 원래 五代十國 가운데 吳越의 왕 錢鏐의 후손이었는데 부친 錢俶이 땅을 바치고 송나라에 투항했기 때문에 송나라 태종이 “충효로써 사직을 보전했다”고 칭송한 바 있다. 姚黃花는 河陽 姚氏의 집에서 재배되어 낙양으로 들어가 널리 퍼진 황모란으로, 전유연이 洛陽留守로 있을 때 이것을 궁중에 바친 적이 있었다.³³⁾ 당시의 세태를 풍자한 소식의 시를 보면서 신흠은 지금이나 그때나 관리들의 횡포와 이로 인한 민중들의 고통은 별반 다를 게 없음을 느꼈던 것 같다.

이밖에도 신흠은 소식의 시문에 대해 때로는 名句를 예로 들어 짧은 평을 남기고 또 때로는 자신의 시론이나 문론을 곁들여 좀 더 심도 있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사 사용이 너무 많아 못 먹을

31) 蘇軾, <荔支嘆>, 《蘇軾詩集》(王文誥輯註本) 권39.

32) 申欽, <春城錄>, 《象村稿》(韓國文集叢刊本) 권55.

33) 柳種睦·宋龍準, 《宋詩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260-263쪽 참조.

음식을 잔뜩 늘어놓는 것 같다는니 하는, 당시 사람들이 병폐로 여기는 부분들을 먼저 지적한 후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반증함으로써 설득력을 갖춰 자신의 견해를 역설하기도 하는 등 신흘은 소식의 시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를 내렸다.

IV. 蘇軾과 자신의 동일시

소식의 시문이 유입된 이래로 고려 및 조선의 많은 문인들이 그에게 심취하였고 그를 흠모하며 그를 배우고 심지어 그와 비슷해지고자 하였다. 신흘의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소식을 좋아하고 그의 시문을 우호적으로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소식을 보며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고, 더 나아가 자신을 소식과 동일시하였다.

누구나 어렸을 적에 위인전을 읽고 감명 받아 나도 그 사람처럼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 보았을 것이다. 고려 및 조선의 많은 문인들에게 있어서 소식은 그러한 존재였다. 신흘 역시 소식에 심취하여 그와 비슷해지고자 한 모습이 많이 보인다.

신흘은 춘천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에 玄翁이라는 호를 사용하면서 많은 시문을 남겼고, 자신의 학술사상을 정리한 수필집인 《구정록》을 완성하였는데, 그 중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蘇子瞻(소식)은 哲宗 소성 갑술년(1094, 고려 선종 11년)에 定州 지주였다가 다시 莒州 지주가 되었고 다시 惠州安置로 폄적되었으며 정축년(1097, 고려 숙종 2년)에는 죄가 더해져 昌化軍安置로 폄적되었으니 바로 儋耳(지금의 海南省 儋州市 中和鎮)이다. 담이에 거주한 지 4년 만인 徽宗 경진년(1100, 고려 숙종 5년)에야 비로소 죄가 감면되어 가까운 곳으로 옮겨졌는데, 담이에 거주한 지 3년 되던 때에 그가 子由에게 보낸 시에 “7년 동안 왔다 갔다 내가 어찌 건넜는가?”라는 구절이 있으니, 혜주와 담이에 모두 7년을 있었던 것이다. 나는 계축년(1613, 조선 광해군 5년) 여름에

放歸田里되었다가 병진년(1616, 광해군 8년)에 이르러 죄가 더해져 春川府에 付處되어, 시골에 거주한 것이 4년이다. 앞으로 또 몇 년이나 춘천에 있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동과 노인의 成都玉局觀 발자취와 같아질 수 있을까? 우연히 年譜를 보던 중에 그가 벌을 받은 기간이 4년인 데다 벌이 더해진 것도 나와 마찬가지로임을 알고, 이에 기록해 두었다가 훗날 보려고 한다.(蘇子瞻以哲宗紹聖甲戌, 知定州, 復知英州, 再貶惠州安置, 至丁丑加罪昌化軍安置, 卽儋耳也. 居惠者四歲,³⁴⁾ 至徽宗庚辰, 始量移, 居儋者三歲, 其寄子由詩有“七年來往我何堪?”³⁵⁾之句, 通惠與儋七年矣. 余於癸丑夏放歸田里, 至丙辰加罪春川府付處, 居田里四歲矣. 不知居春又當幾歲, 能如坡老玉局之往躅耶? 偶閱年譜, 見其得罪四年而加罪者, 與我同, 故記之以爲後觀.)³⁶⁾

소식은 해주·담이 등지에서 오랫동안 유배생활을 하다가 철종 元符 3년(1100)에 완전히 사면되어 提學成都玉局觀에 임명됨과 동시에 거주의 자유를 회복했는데, 신흠은 자신의 처지가 소식과 매우 비슷하다고 여겨 동병상련의 정을 느꼈을 뿐 아니라 “과연 동과 노인의 成都玉局觀 발자취와 같아질 수 있을까?”라 하며 만년에 거주의 자유를 회복한 소식과 같아질 수 없을까 봐 염려했다. 또한 소식이 벌을 받은 기간과 벌이 더해진 상황마저 자신과 비슷하기에 훗날 보기 위해 이를 기록한다고 밝혔듯이, 소식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이렇듯 신흠이 자신을 소식과 동일시하려는 심리는 “만사가 나에게 무얼 어찌 하겠나? 남은 세월 구렁으로 들어가는 뱀처럼 그냥 두자. 만년의 계획은 혹여나 백거이와 같으려나, 신명이야 소동파와 비슷하다만(萬事無如我何, 殘年任他壑蛇. 晚計或似香山, 身名彷彿東坡)”³⁷⁾, “전당의 좋은 정치 속세에 없는 정치, 남북의 높은 봉우리 裏湖와 外湖. 어찌하면 후생에 서호의 우두머리 되어, 백거이처럼

34) 申欽의 《象村稿》에 “居惠者四歲”라고 되어 있는데 “居儋者四歲”의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35) 蘇軾, <過嶺二首> 其二, 《蘇軾詩集》(王文誥輯註本) 권45.

36) 申欽, <春城錄>, 《象村稿》(韓國文集叢刊本) 권55.

37) 申欽, <題壁上二首> 其二, 《象村稿》(韓國文集叢刊本) 권17.

소동과처럼 마음껏 놀아보려나?(錢塘清賞世間無, 南北高峯裏外湖. 安得來生作湖長, 放遊如白又如蘇?)³⁸⁾, “누가 알리 현옹이 금릉으로 가는 때가, 때마침 소옹이 적벽으로 간 때임을?(誰知玄叟金陵日, 正直蘇翁赤壁年?)³⁹⁾ 등과 같이 그의 시에도 여기저기에 드러나 있다.

다음은 <익성과 익량에게(示翊聖翊亮)>⁴⁰⁾라는 시의 서문 가운데 일부이다.

우리 집의 아들 둘과 손자 셋 및 동생 집의 아들 둘과 손자 하나 가운데 장성한 애는 이따금씩 글을 제대로 지을 줄 알게 되었고, 어린 애도 모두 격식과 운율을 갖추었다. 옛날에 蘇長公(소식)이 僣耳에 있고 卯君(蘇轍)이 雷州(지금의 廣東省 雷州)에 있을 때 瓊州(지금의 海南海口)에서 儋州에 이르는 운해를 사이에 두고 간혹 편지로 서로 위로했는데, 매번 子由(소철)의 자손과 斜川(蘇過) 이하의 자기 자손 총 아홉 명을 자랑하며 스스로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여겼다. 그가 자유에게 준 시에 “아들 손자 일곱 명이, 차례대로 모두 다 길운을 만났네”라고 했으니 아들과 조카의 수가 우리 집안과 대략 같다. 소동과가 답이에 거주할 때 斜川公이 그 생계를 꾸려 나갔기에 늙은 소동과는 곡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다만 문자를 가지고 스스로 마음을 달랬다. 지금 나도 조정에서 쫓겨나 장남에게 의지하여 집안일을 처리하게 하고 곡식을 내다 팔아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게 하고 있으니 이 또한 서로 비슷하다. 이것을 靖節翁(陶淵明)이 술잔을 물고 천운을 한탄한 것과 비교하면 그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는가? 송나라가 長江을 건너 남쪽으로 내려간 뒤에 소동과의 손자 蘇符가 예부상서가 되고, 증손자 蘇嶠 또한 명망이 있었다. 고종은 소동과의 글을 곁에 두고 읽었는데 하루 종일 지칠 줄을 몰랐으며, 친히 문집의 贊을 지어 소교에게 주고 마침내 소동과에게 太師를 추증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소부와 소교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인바, 현자가 보답을 받는 것은 항상 하늘이 정해 준 뒤임을 잘 알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집안 후손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힘써야 하는 바이나, 보는 사람들은 웃을 것이다.(吾家兩兒

38) 申欽, <題西湖志後>, 《象村稿》(韓國文集叢刊本) 권19.

39) 申欽, <癸丑歲除有懷>, 《象村稿》(韓國文集叢刊本) 권15.

40) 翊聖은 신흘의 아들이고, 翊亮은 신흘의 아우인 申鑑의 아들이다.

三孫及季氏家二兒一孫，長者或已成章，少者皆有格韻。昔蘇長公在儋耳，卯君在雷州，瓊雷雲海之間，間以赫蹄相慰者，每以子由兒孫斜川以下子姓凡九人誇託，自以爲有人所未有者。其贈子由詩曰：“兒孫七男子，次第皆逢吉”，子姪之數，與吾家略同。而坡之居儋，斜川公實經紀其生，老坡不知瓶粟有無，只以文字自遣。今吾被放，亦賴長兒葺理室屋，質販穀粟而給之，此又相類。抑比之靖節翁含杯恨天運者，不其差賢耶？及宋南渡，坡之孫符爲禮部尙書，曾孫嶠亦有名。高宗以坡文實左右，讀之終日忘倦，至親製集贊賜嶠，遂贈太師，符·嶠與有力，足見賢者食報，恒在天定之後也。此則吾家後裔所當企勉者也，覽者哂之。）⁴¹⁾

위에서 “그가 자유에게 준 시에 ‘아들 손자 일곱 명이, 차례대로 모두 다 길운을 만났네’라고 했으니 아들과 조카의 수가 우리 집안과 대략 같다”라고 하였거니와, 소식 시의 이 구절에 대한 소식의 自注에 “자유는 아들 셋에 손자가 넷이다(子由, 三子四孫)”라고 했으니 이는 당시 소철의 자손만 모두 일곱 명이었다는 뜻이고, 신희가 스스로 “子由의 자손과 斜川 이하의 자기 자손 총 아홉 명”이라고 했으니 소식·소철 형제의 자손을 합치면 모두 아홉 명이었다는 뜻으로 신희의 경우와 같지 않은데, 신희는 소식과 자신의 아들과 조카의 수가 대략 같다고 하였다. 소식 형제와 자기 형제의 자손의 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는데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이런 현상을 두고 신희는 소식 형제와 대략 같다고 생각했으니, 이는 자신을 소식과 동일시하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 주는 방증이라고 하겠다. 또 이 시 본문의 전반부에서 자신의 아들과 조카의 재주에 대해 이야기한 후, 이어서 “소동파 집안의 일곱 아들과, 누가 잘났나 견주어도 길조를 만나겠네. 于公이 대문을 높게 할 수 있었던 건, 선이 넘쳐 남아도는 경사가 있어서였네. 나는 쇠락한 것이 소동파와 비슷하여, 만년에 곤경에 빠져 버렸네. 문자들 사이에서 부침하는 것 또한, 소동파와 내가 같네. 쇠락하여 떠돈다고 한탄할 게 무엇이리, 이 즐거움 하나면 한평생 살기에 충분하네(蘇家七男子, 麗美宜逢吉. 于門可高大, 餘慶由善溢. 吾衰似老坡,

41) 申欽, <示翊聖翊亮>, 《象村稿》(韓國文集叢刊本) 권6.

晩途坐迢迢. 浮沈文字間, 坡與吾同然. 淪落何足歎, 此樂足窮年)”⁴²⁾라고 하며 자신의 아들과 조카를 소식 집안의 아이들과 비교해 보기도 하고, 자신의 쇠락함과 곤경에 빠진 처지가 소식과 흡사하다며 그와 동일시하기도 했다. 흔히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성격이라든지 취미라든지 그 사람과의 공통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신희의 심리 역시 이와 유사하지 않았을까 한다. 가뜩이나 자신이 좋아하고 배우고 싶은 소식네 집안과, 자손의 상황마저 비슷한 것을 보고 얼마나 흐뭇했으면 이런 시를 다 지었을까 싶다. 그러면서 소식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 역시 이러한 삶을 한탄하지 않고 즐겁게 여기겠다는 삶에 대한 초연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신희는 자신의 시를 통해 소식에 대한 자신의 감회를 담아내기도 했다.

前身戒和尚	전생에는 계화상이었는데,
當世蘇東坡	현세에는 소동파가 되었는데.
如今幾百年	지금까지 몇 백 년이 지났건만,
豪氣猶不磨	호방한 기운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네.
脫落進退間	나아감과 물러남을 가벼이 여기나니,
浮雲於我何	뜬 구름 같은 부귀공명 내게 무엇이던가?
南荒與紫清	남쪽의 황량한 땅이건 신선 사는 천상이건,
一視無等差	아무런 차등 없이 한가지로 보았네.
半夜赤壁遊	한밤중에 적벽에서 노닐 때,
逸韻凌青霞	빼어난 운치가 푸른 구름 위로 올라갔네.
隻字落人間	한 글자일지라도 이 세상에 남겼으니,
萬古傳菁華	만고토록 정화로 전해질 것이네.
晩參曹洞禪	만년에 조동종의 참선에 참여하여,
了盡恒河沙	무수히 많은 불법을 다 깨우쳤네.
是非俱兩空	옳은 것과 그른 것 두 가지 다 공허하고,
歷劫如擲梭	여러 겁이 북 한 번 던진 것과 같다네.
所嗟天地閉	내가 한탄하는 것은 천지가 닫혔는데,

42) 申欽, 《象村稿》(韓國文集叢刊本) 권6 <示翊聖翊亮>

平陸生矛戈	평지에서 창들이 솟아나는 것이네.
枉直誰更分	굽은 것과 곧은 것 누가 더 이상 분별하리,
賢邪竟同科	어진 것과 사악한 것이 필경 한가지라네.
時命不可謀	운명이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謗余爲悲歌	아! 내가 이 때문에 슬피 노래하노라. ⁴³⁾

시제에서 소식의 시 혹은 문장 등의 작품명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냥 ‘동파의 글을 읽고(讀東坡)’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였는데, 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신희미 소식의 어떤 특정 글 한 편을 읽고 쓴 것이 아니라 소식의 작품을 두루 읽고 나서 그의 문학 전반에 대한 감상과 더불어 소식을 떠올리며 자신의 감회를 풀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제1~4구에서는 소식을 계화상에 비유하며 소식 시문에서 전해지는 호방한 풍격과 기운이 몇 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진다고 말하였다. 제5~8구는 부귀 공명을 뜬 구름 같이 공허하게 여기고 관직에 나아감과 물러남에 연연해 하지 않던 평소 소식의 모습을 그렸는데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신희미 자신도 그런 경지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제9~12구에서는 소식의 <赤壁賦>와 그 속에 묘사된 적벽선유에 대한 고사를 거론하며 그의 문장이 오랜 세월 정화로 전해질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만큼 소식의 문장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제13~16구는 소식이 만년에 불교에 심취하여 시비를 가리는 것이 다 공허하고 인생은 결국 순간과 같다고 여기며 사소한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 초탈한 경지에 올랐음을 말하고 있다. 제17~20구에서는 소식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지만 정적들에 의해 핍박을 받으며 평생을 중국 각지를 전전하며 살았는데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 역시 은연중에 자신의 신세를 소식과 동일시하며 동병상련의 정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결국 운명이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한탄하면서 소식을 떠올리며 슬피 노래한다고 하였다. 이 시에는 소식 및 그의 문학에 대한

43) 申欽, <讀東坡偶書>, 《象村稿》(韓國文集叢刊本) 권5.

신흠의 총평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전체 시 안에 소식을 향한 신흠의 추앙심이 잘 스며들어 있다.

이상의 기록들을 통해 신흠이 평소에 소식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유배시절,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소식을 떠올리면서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고 나아가 자신을 소식과 동일시하며 반가운 마음을 표출하기도 하였으며, 또 틈틈이 소식 시문을 읽으며 그의 문학세계에 경도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소식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은 결국 신흠이 소식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마음에서 연유한 것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조선중기 문인 신흠의 소식관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그가 남긴 다양한 글을 통해서 그가 소식의 시문을 높이 평가했을 뿐 아니라 소식의 사람 됨됨이까지도 흠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중·후기 및 조선 전기 문단의 소식을 추앙하고 그의 시문을 학습하고자 하는 열기, 즉 「東坡熱」이 매우 뜨거웠던 데 비하면, 조선 중기에는 성리학의 성행과 唐詩 학습 열풍으로 인해 소식에 대한 애호는 식어갔고, 오히려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 가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저명한 성리학자였던 신흠은 성리학에서 그토록 배척했던 소식을 흠모하였으며 당시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던 문단 내의 주된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송시의 대표격인 소식의 시를 즐겨 읽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였으니 이는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러면 신흠이 소식의 위인을 좋아하고 또 그의 시문을 높이 평가하며 배우려 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신흠이 사상과 학문 등을 수용함에 있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가졌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⁴⁴⁾ 그는 “세상에서 당시를 말하는

44) 신흠은 당시 성리학에 빠져 있는 다른 문인들과는 달리 열린 사고를 지니고

사람들은 송시를 배척하고, 송시를 배우는 사람들 또한 반드시 당시를 높이 여기지 않는데 이는 모두 편벽된 생각일 따름이다. 당시가 쇠퇴했을 때 어찌 속된 악보가 없었을 것이며 송시가 흥성했을 때 어찌 우아한 소리가 없었겠는가. 이는 바로 허리띠 고리의 쇠나 한 수레의 뿔감과 같은 부류이다⁴⁵⁾(世之言唐者斥宋, 治宋者亦不必尊唐, 茲皆偏已. 唐之衰也, 豈無俚譜; 宋之盛也, 豈無雅音? 此正鉤金與薪之類也)⁴⁶⁾라고 말하며 당시든 송시든 어느 한쪽만을 내세우는 것은 편벽된 견해이므로 각각의 장점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당시와 송시의 시대성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긍정한 것으로, 당시 문단에서 송시를 배척한다고 해서 그가 무작정 그들의 의견을 따라 소식 시를 배척하지 않은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청창연담》에서 그가 무작정 소식을 배척하면서 당시를 좇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신희미 보기에 소식의 시 가운데 명구가 많았으며 자신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신희미 이토록 소식에 심취한 데는 그의 인생역정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신희미는 남다른 재능을 지니고 있었으면서도 정치적

있었다. 그의 열린 사고의 기저에는 다양한 독서체험과 상대적 가치를 긍정하는 학문관 등의 인식이 깔려 있다. 신승훈,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기 문학이론의 다변화양상--유몽인·이수광·신희미·허균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4, 46쪽 참조.

45) 허리띠 고리에 사용된 소량의 쇠와 수레에 가득 실은 다량의 새털을 비교하여 새털이 쇠보다 무겁다고 우기거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을 한다는 뜻이다. 《孟子·告子下》에 “쇠가 새털보다 무겁다는 것이 어찌 허리띠 고리 하나의 쇠와 수레에 가득 찬 깃털을 두고 하는 말이겠는가?(金重於羽者, 豈謂一鉤金與一輿羽之謂哉?)”라는 말이 있고, 《孟子·梁惠王上》에 “맹자가 말하기를 ‘임금님께 “제 힘은 3천 근을 들 수 있지만 새털 하나를 들기에는 부족하고, 제 시력은 가늘 대로 가늘어진 가을철의 털끝을 볼 수 있지만 수레에 가득 실은 뿔감은 못 봅니다”라고 여쭙는 사람이 있다면 임금님께서서는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하자 ‘아니오’라고 했다(曰: ‘有復於王者曰: “吾力足以舉百鈞, 而不足以舉一羽; 明足以察秋毫之末, 而不見輿薪.” 則王許之乎?’ 曰: ‘否.’)”라는 말이 있다.

46) 申欽, 《晴窓軟談·上》, 《象村稿》(韓國文集叢刊本) 권51.

역경 또한 적지 않아 소식과 유사한 면이 많았다. 그랬기에 자신을 소식과 동일시하며 소식을 벗 삼고 그와의 정신적 교류를 통해 자기 위안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소식이 昌化軍安置의 유배령이 풀려 북쪽으로 돌아가는 도중 金山寺에서 옛날에 李公麟(1049~1106)이 그려놓은 소동파 자신의 초상화를 보고 자신의 일생을 돌이켜보다가 “마음은 재가 된 나무 같고, 몸은 묶여 있지 않은 배 같네. 너의 평생 공적이 무엇이나 묻나니, 황주 해주 그리고 담주 뿐이라네(心似已灰之木, 身如不繫之舟. 問汝平生功業, 黃州惠州儋州)”⁴⁷⁾라고 말한 바 있는데, 해학적으로 표현하기는 했지만 그는 실제로 거의 평생을 정적들의 모함과 비방을 받아 중국 각지로 폄적 다니다 말년에는 저 바다 끝의 영남 땅과 바다 너머에 있는 해남 땅으로까지 쫓겨 가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늘 초연했다. 해주로 유배 갔을 때, 북쪽에서는 먹어보지 못했던 열대과일 여지를 처음 먹어보고는 “내 살면서 입을 위해 세상을 두루 다녔건만, 벼슬길에 나선 뒤 오랫동안 순채국과 농어회를 가며이 했네. 인간세상에 무엇인들 꿈이 아니라? 남쪽으로 만 리 내려온 건 참으로 잘한 일이라네(我生涉世本爲口, 一官久已輕蓴鱸. 人間何者非夢幻, 南來萬里眞良圖)”⁴⁸⁾라 하고, 또 “나부산 아래는 사시사철 봄이라, 비파와 양매가 차례대로 난다네. 날마다 여지 삼백 개를 먹나니, 오래도록 영남 사람 되어도 좋으리(羅浮山下四時春, 盧橘楊梅次第新. 日啖荔支三百顆, 不辭長作嶺南人)”⁴⁹⁾라 하며, 여지를 먹은 즐거움을 해학적으로 노래한 바 있다. 여지가 아무리 맛있다고 한들 황량한 폄적지에서의 삶의 고통을 어찌 다 씻어 줄 수 있으랴마는 그는 이렇게 소소한 기쁨을 찾아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노래함으로써 비애를 지양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삶을 더부살이 인생이라 여겨 “내 인생은 하숙생과 같을 뿐인데, 어느 것이 내 집이란 말인가?(吾生如寄

47) 蘇軾, <自題金山畫像>, 《蘇軾詩集》(王文誥輯註本) 권48.

48) 蘇軾, <四月十一日初食荔支>, 《蘇軾詩集》(王文誥輯註本) 권39.

49) 蘇軾, <食荔支>, 《蘇軾詩集》(王文誥輯註本) 권40.

耳, 何者爲我廬?)”⁵⁰⁾, “내 삶은 하숙생과 같을 뿐이라, 영남지방도 한가로운 여행이라네(吾生如寄耳, 嶺海亦閑游)”⁵¹⁾라는 등 “吾生如寄耳”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곤 했다. 이와 같이 소식은 삶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며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비애를 지양하는 태도를 평생 견지하였는데, 신희가 소식을 좋아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마음을 나눌 사람과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신희에게 소식은 바로 누구보다도 진정한 벗이 되어 주었고 그의 시문은 치유의 처방이 되었던 것이다.

소식의 부화뇌동하지 않는 올곧은 품성과 호방한 기상, 그리고 좌절 속에서도 초연함을 잃지 않는 달관의 태도는 當時뿐 아니라 후대에까지 오래도록 많은 문인들의 공감을 일으켰으며, 그의 감화력 있는 글은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져 널리 읽히고 사랑받았다. 그러다가 조선 중기에는 소식과 다른 관점으로 대립과 충돌이 잦았던 성리학이 성행하고 또 이전시기와 달리 문단 내에 唐詩 학습의 열기가 뜨거워짐에 따라 문인들의 소식에 대한 학습열도 많이 식었고 오히려 그를 배격하는 목소리까지 커지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지 않은 문인들이 소식을 열렬히 추앙하고 그의 시문을 배우고자 하였는데, 신희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신희가 조선중기 한문사대가 중 한 명이자 성리학자였던 점을 감안해보면 소식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다.

<References>

1. An Anonymous Author. *Shizudaquan*. Wenyuange Sikuquanshu.
2. Cho Kyubaek. “Acceptance and Evaluation of Su Dongpo’s Poetry by the Literati of the Choseon dynasty”. *Sungkyun Journal of*

50) 蘇軾, <和陶擬古九首> 其三, 《蘇軾詩集》(王文誥輯註本) 권41.

51) 蘇軾, <鬱孤臺>, 《蘇軾詩集》(王文誥輯註本) 권45.

- East Asia Studies* Vol.91, (2015).
3. Cho Kyubaek. "Acceptance of Su Dongpo's Poetry and Prose by Chosun Dynasty's Literary Men and Their Views on Su Dongpo". *Studies for Toikie and Korean Culture* Vol.38, (2006).
 4. Cho Kyubaek. "An outlook on the Acceptance of Su Dongpo's Literature during Goryo and Choseon dynasty". *Journal of Chinese Studies* Vol.73, (2015).
 5. Huh Kyun. *Sungsobokbugo*. Hankuk Munjip Chonggan.
 6. Jeong Il Nam. "A Study on Sang-cheon(象村) Shin-heum(申欽) in relation to Cho-sa(楚辭)".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Vol.24, (2011).
 7. Jung Sook In. "A Study on 20 Drinking Poems among Shin Hum's Hwadosi".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Vol.35, (2012).
 8. Kang Kyung Hee. "A Study on Tendency to Revere Su Shih and the Su Shih's Portrait with a Bamboo Hat and Wooden Shoes in the Late of Chosun Dynasty".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65, (2010).
 9. Kim Bokyoung.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n the 'He-Tao-Shi' by Traditional Korean Poets". *Journal of Chinese Literature* Vol.66, (2011).
 10. Kim Jou Soon. "Some Aspects of Tao Yuanming's Influence on Shin Hum's Poetry". *Journal of Chinese Humanities* Vol.28, (2004).
 11. Kim Ju Baek. "A Study of Sangchon Shim Hum's 「Hwadosi」".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in Chinese* Vol.10, (1992).
 12. Kim Young Chun. *A study on Lee Kyo BO*. Daegu: Keimyung University, 1981.
 13. Lee Suguang. *Jibongyusul*. Hankuk Munjip Chonggan.
 14. Liu Jongmok & Song Yongjoon. *A Bilingual Anthology of the Poetry*

- of Song Dynast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9.
15. Liu So Jin. *A Study on Su Shi's Influence on the Poetry of the Gaoli Dynasty and the Chaoxian Dynasty*. Beijing: Peking University, 2013.
16. Lu You. *Jiannanshiku*. Wenyuange Sikuquanshu.
17. Minjokmunhua Chujinhui. *The Literary World of Shin Heum*. Seoul: Minjokmunhua Chujinhui, 1997.
18. Park Haenam. *The Trace and Meaning of Shin Heum's Literature*. Paju: Bogosa, 2012.
19. Shin Seunghun. *Some Rapidly Changing Aspects of Literary Theory from the Second Half of the 16th Century to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With Yu Mong—In(柳夢寅), Lee Su-Kwang(李睟光), Shin Heum(申欽), Heo Kyun(許筠) as The Central Figures—*. Seoul: Korea University, 2004.
20. Shin Heum. *Sangchongo*. Hankuk Munjip Chonggan.
21. Sim Kyungho. *Comprehension of the Poetry in Chinese Characters by Korean*. Paju: Taehaksa, 2000.
22. Su Shi/Liu Jongmok. *Sushishiji translated into Korean 1-2*.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2.
23. Su Shi/Wang Wengao. *Sushishiji*. Beijing: Zhonghua Shuju, 1987.
24. Su Zhe. *Luanchengji*. Shanghai: Shanghai Guji Chubanshe, 1987.
25. Wang Shuizhao/Cho Kyubaek. *A Literary Giant of China Su Shi's Life and Literature*. Paju: Dolbegae, 2013.
26. Wang Shuizhao. *Sushi Yanjiu*. Shijiazhuang: Henan Jiaoyu Chubanshe, 1999.

<참고문헌>

1. 無名氏, 《氏族大全》(文淵閣四庫全書本)
2. 조규백, <조선조 문인의 소동파시 수용과 평가>, 《대동문화연구》 91권, 2015.
3. 조규백, <朝鮮時代文人對蘇東坡詩文的“受容”及其蘇東坡觀>,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38호, 2006.
4. 조규백, <고려·조선조에서의 소동파 수용에 관한 연구개황—1964~2015년 기간을 중심으로>, 《中國學報》 제73집, 2015.
5. 許筠, 《惺所覆瓿藁》(韓國文集叢刊本)
6. 정일남, <象村 申欽의 屈騷 수용양상>, 《한문학보》 24권, 2011.
7. 정숙인, <象村 申欽의 <和陶詩> 중 <飲酒> 20首 연구: 陶淵명의 <飲酒>, 蘇軾의 <和陶飲酒詩>와의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우리문학연구》 35권, 2012.
8. 姜慶姬, <朝鮮後期 崇蘇熱과 東坡笠屐圖>, 韓國中國語文學硏究會, 《中國語文學論集》 제65호, 2010.
9. 김보경, <韓國「和陶詩」硏究 序說>, 《중국문학》 66권, 2011.
10. 김주순, <申欽의 漢詩에 나타난 陶淵명의 受容樣相>, 《중국인문과학》 28권, 2004.
11. 김주백, <象村 申欽의 和陶詩 연구>, 《한문학논집》 10권, 1992.
12. 金暎春, <李奎報硏究>, 啓明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1.
13. 李晬光, 《芝峯類說》(韓國文集叢刊本)
14. 柳種陸·宋龍準, 《宋詩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15. 柳素眞, 《蘇軾對高麗及朝鮮漢文詩壇的影響硏究》, 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16. 陸游, 《劔南詩藁》(文淵閣四庫全書本)
17. 민족문화추진회, 《상촌 신희의 문학세계》, 民族文化推進會, 1997.

18. 박해남, 《상촌 신희 문학의 궤적과 의미》, 보고사, 2012.
19. 신승훈,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기 문학기론의 다변화양상-유몽인·이수광·신희·허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20. 申欽, 《象村稿》(韓國文集叢刊本)
21. 심경호, 《한국 한시의 이해》, 태학사, 2000.
22. 蘇軾著/柳種睦譯註, 《정본완역 蘇軾詩集1-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23. 蘇軾著/王文誥輯註, 《蘇軾詩集》, 中華書局, 1987.
24. 蘇轍, 《欒城集》, 上海古籍出版社, 1987.
25. 왕수이자오 지음/조규백 옮김, 《소동파평전—중국의 문호 소식의 삶과 문학》, 돌베개, 2013.
26. 王水照, 《蘇軾研究》, 河南教育出版社, 1999.

<Abstract>

Su Shi(蘇軾, 1036~1101) was one of the most distinguished poets in the Northern Song(北宋) dynasty(960~1127), until now most of his poems are very influential, and he occupies important position in the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 His poems were introduced into Goryo(高麗) during his lifetime. After that, his poems were widely read by the poets of Goryo and Chosun(朝鮮) dynasty(1392~1910).

But the middle Chosun dynasty is a period while admiration for Su Shi comparatively declined with the appearance of Korean neo-Confucianists. Even though Shin Heum(申欽) was one of influential Korean neo-Confucianists of this period, he not only worshiped Su Shi's personality but also had a passion for his works. He even wished to identify himself with Su Shi.

Through this thesis, I surveyed Shin Heum's viewpoint on Su Shi's personality, and presented some aspects he loved and learned Su Shi's works.

Key Words : 신흘(Shin Heum), 소식(Su Shi), 관점(viewpoint),
위인(personality), 시문(work), 동일시(identification)

